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개념 정립 및 발전 방안*

- 발전과정 및 기능 분석을 통하여 -

Subject Based Classification: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as a Classificatory System

백 지 원 (Ji-Won Baek)**

초 록

본 연구는 주제어기반 분류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기능과 유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분류체계로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3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주제어기반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주제어기반 분류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그 명칭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류로서의 주요 기능 수행력을 기존의 문헌분류와 비교하고, 분류와 주제명표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식조직체계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주제어기반 분류는 구체적인 기능 정의, 유형, 사용되는 정보환경, 지식조직체계간의 관계성 등을 면밀히 고려함으로써 그 분류론적 개념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음을 밝혔고, 향후 분류체계로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1) to analys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condition of the subject based classification(SBC), 2) to clarify the function and to categorize the specific kind of SBC, for its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this purpose, almost 30 cases, for the period 1937 through now, were analyzed concerning their terms used in the names and the specific kinds as SBC. In addition, the analysis was made regarding how the SBC fulfill the selected main functions as a classificatory scheme and how SBC is inter-related with the other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s(KOS) such as classification and subject heading.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conclusion addressed that SBC c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function, typ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nterconnection among the KOS, and suggeste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SBC as a classification scheme.

키워드: 주제어기반 분류, 이용자 관심 분류, 주제어, 이용자, 분류

Subject Based Classification, User Interest Classification, Subject, User, Classification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NRF-2011-35C-H00016), 2012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강사(jw_baek@naver.com)

논문접수일자 : 2012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2월 11일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래 Web 2.0과 Library 2.0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생산과 조직에 이용자의 참여가 일반화되면서 일반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보다 쉽고 유연한 정보조직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는 다양한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보 환경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어려운 분류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DDC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기능을 축소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범주를 설정하여 주제명 형식의 항목명으로 분류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주제어기반 분류가 등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DDC 중심의 오랜 분류 관행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주제어기반 분류의 적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이의 적용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크고 작은 효과와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DDC보다 쉬운,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된 분류법에 대한 제안과 적용은 근래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초로 알려진 것만 해도 70년 이상 되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 분류 방식이며, 근래 시도되는 주제어기반 분류법은 이러한 흐름이 현재의 정보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제어기반 분류는 분류론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의된 바 없고, 분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특성 등 이론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DDC의 대안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분류로서의 이론과 원칙적 측면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따라서 분류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 시도가 DDC나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등 주요 문헌분류법에 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래의 주제어기반 분류법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제어기반 분류가 단순히 일부 현장의 파격적인 시도나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지 않고 장차 하나의 주된 분류법으로 인정받고 정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독립적인 분류법으로서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과거의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분류 이론과 기능이 확립되지 못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진화해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주제어기반 분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종합·분석하고, 기존의 지식조직체계와의 기능적 비교 분석을 통해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주제어기반 분류의 주된 분류법으로서의 정착 가능성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범위로 구성

되었다.

첫째, 주제어기반 분류와 개념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다양한 논의와 사례의 분석을 통해 DDC에 대안적인 분류가 제안되고 적용되어 온 이유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를 지칭하는 명칭을 분석하여 주제어기반 분류가 발전되어온 과정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분류 체계를 작성하거나 장서를 분류하고 배열하고자 한 논의들을 각종 단행본, 논문, 기사, 웹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논의는 1937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표된 것으로, 시기별로 거의 빠짐 없이 분포되었다. 실질적인 분류 사례에 관한 정보는 각종 문헌조사 및 해당 도서관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의하여 수집하였으며, 시기별로는 Hyman(1980), Sapiie(1995), 백지원(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Hyman(1980)의 연구에서는 1876~1976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서가 분류와 배열, 기호법 등에 관한 다양한 실험과 논의를 19가지 범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다. Sapiie(1995)에서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의 이용자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 사례를, 백지원(2010)에서는 2007~2010년의 주제어기반 분류의 사례를 종합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례를 모두 포괄하되, 개별적으로 파악된 근래의 사례 4건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분류 사례로는 1940~1960년의 2건, 1980~1995년의 최소 10건, 2000년 이후 15건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다. 1980~1995년의 사례는 분석 대상 리스트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내용적으로 최소 10건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로서의 기능 수행력 및 지식조직체계로서 가지는 기능과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제어기반 분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주제어기반 분류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주제어기반 분류의 유형별 기능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분류'의 주요 기능을 도서관과 이용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주제어기반 분류가 '분류'로서의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조직체계의 한 유형으로서 분류 및 주제명표목과 그 기능을 비교하고, 특히 주제어기반 분류가 적용 유형 및 정보조직의 결과로 제시되는 표현 방식에 따라 어떤 기능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제어기반 분류가 향후 분류체계로서 정착 및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의 논의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논의의 대상으로 일반적인 이용자가 특수한 정보검색 요구를 가지지 않고, 비학술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의 정보 환경을 설정하였다.

1.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의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주제어기반 분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제어기반 분류는 분류로서의 개념은 물론, 공식적인 명칭도 확

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래에 주제어기반 분류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논의는 Langridge(1992)의 분류에 관한 단행본에서 발견된다. Langridge는 흔히 범주화가 분류를 대체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주제어기반 분류는 공공도서관에 적합하도록 DDC의 상세한 체계보다 좀 더 넓은 분류체계를 주제 배열과 함께 사용하는 '분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논의는 주제어기반 분류가 '분류'의 또 다른 형태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흥미로운 것은 Hyman(1980, 38)이 1966~1974년 당시의 서가배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연구는 개가제 서가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판단하는 것과 어떻게 분류가 이러한 요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이나 연구 도서관을 위한 전통적인 서가 분류에 관한 연구 관심은 크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즉, 그 당시 새롭게 도입되어 확대되기 시작한 개가제의 영향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직접 접근에 적합한 분류법을 고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분류에 대한 주된 논의가 대학이나 연구 도서관에 적합한 전통적인 주요 분류법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근래에 또 다시 이용자 관점의 분류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분류 연구의 주된 초점이 시대에 따라 순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piie(1995)는 1980~1995년의 기간 동안

파악된 이용자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이용자 관심 분류'란 책의 주제 보다는 이용자의 특수한 관심을 반영하고자 의도한, 보다 단순하고 폭넓은 분류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으로, 독자를 중심으로 놓음으로써 이용자의 자율적인 도서관 활용을 장려하고 장서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분류법 변경의 주된 요인으로는 브라우징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과 DDC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DDC는 현대 정보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주장들이 있다. Schneider(2007)는 DDC는 큰 규모의 폐가식 서가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이용자를 대신해 알고 있는 자료를 찾거나 브라우징을 하는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찾는 동네 도서관의 평범한 이용자를 위해 쉽게 고안된 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대형 서점의 분류 방식은 어휘가 단순하고 하위항목은 폭넓으며 대분류항목은 이용자의 브라우징과 구매 습관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이것이 현대 공공도서관 환경과 이용 요구에 보다 적합한 분류도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국내의 연구로서 오경은과 김기영(2008)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목적, 서비스대상, 장서, 이용자의 정보이용 목적 및 이용영역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관중별로 적합한 분류방식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대학도서관에서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DDC와 KDC가 공공도서관

에 사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DDC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보 분류에 관해 소개하고 개발 방법론을 논의한 연구들(백지원 2010/2011; 노지현 2010)이 있다.

이상과 같이, DDC의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새로운 방식의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주제어기반 분류와 장르 분류 등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주제어기반 분류의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성격을 규명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논의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주제어기반 분류의 발전

2.1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약 1세기에 걸친 다양한 분류의 이론과 실제 분류 사례들의 논리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의 관점을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음에는 차이가 없었다. 일례로, E. Wundham Hulme(1911)은 도서 분류의 중요한 목적은 대중이 책을 찾을 때 기대하는 편리한 방식의 그룹으로 책을 분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Phillips 1961, 30에서 재인용), Ernest Cushing Richardson (1930, 26)은 책은 이용을 위해 수집되고 관리되며 분류의 동기 역시 이용에 있다고 하였다

(Phillips 1961, 28에서 재인용).

분류의 실질적인 개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분류의 초점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분류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들이 최소한 19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주요한 논의 사항 및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는 국내의 분류 이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명옥(1986, 16)은 분류기준은 이용자가 가장 쉽게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태수(2000, 52)는 전통적인 분류표가 제공하는 안정성과 통일성은 필요하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환경과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분류표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희운(2011, 12) 역시 분류의 기본원칙을 논함에 있어서 분류는 저자의 의도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되,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분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류는 분류표 사용의 목적을 중요시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이용자의 목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분류체계는 이용자와 이용자의 자료 이용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여가 선용을 위해 가벼운 읽을거리를 찾는 수준의 비특정적 정보 요구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표 1〉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학자(출처)	주요 논의 내용
Kelley (1938, 1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범주와 도서관의 분류 체계가 구성하는 범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사서들은 독자가 도서의 분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대개의 독자들은 배열법을 이해하기는 커녕 별 의미를 두지 않음
Dunkin (1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서들은 고객의 주된 요구에 맞는 자관만의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독자에게 봉사하지 못하는 분류체계는 마땅한 이득 없이 그 자체가 막대한 비용 소모일 뿐이므로, 기존의 DDC나 LCC를 보다 기능적인 분류로 전환하는데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
Savage (1949, 10: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서가배열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어야 함 • 분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분류는 미지의 나라를 위한 엉터리 지도일 뿐임
Ørvig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요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책의 배열은 기술적(technical)이지 않고 쉬워야 함 •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서가 말을 거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도서관의 목록이나 분류체계는 언제나 해설을 필요로 함
Phillips (1961, 16-18: 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분류는 이상적인 세계의 질서가 아닌 실질적인 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함 • 분류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필수조건은 바로 분류의 목적에 대한 고려이며 도서 분류의 성패는 실질적으로 편리한 책의 범주화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음
Maltby (1978, 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C에 도전할 만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용자의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일 것임
Webb (1985,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대부분 브라우저 혹은 독서가라고 판단함 • 이러한 유형의 이용자들은 대개 독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며, 도서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보와 대출과 관련된 기능을 기대함
Langridge (1992, 2: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며, 분류의 선택은 항상 목적과 관계가 있음 • 분류법의 표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은 DDC, LCC 등과 같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표준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관의 이용자에게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류법을 사용해야 함
Losee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점은 분류체계의 이용자를 파악하는 것임 • 전문적으로서 사서는 자신들에게는 다소 덜 효율적인 분류 시스템을 기꺼이 수용하고, 반대로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분류를 제공해야 함
Baker and Wallace (2002, 282-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목록과 같이 잠재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서지제어 도구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이용자들이 겪는 과중한 정보탐색과 좌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Siess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하지 못한 분류는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Woodward (2005, 7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서점이 이용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함 • 도서관이 대형서점과 같이 이용자에게 초점을 둔다면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음
Fialkoff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어기반 분류는 서점과 같은 모델을 위해서 DDC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핵심임
Oder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어기반 분류는 DDC를 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닌 고객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또한 사서들이 대중 앞에 세워놓은 장에물에 관한 것임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정보조직체계는 사서의 적절한 도움이나 해설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분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 조직방식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분류는 이용을 위한 것이며 도서의 분류에 있어서 이용자의 관심과 요구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분류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정작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된 분류는 이용자보다는 학문의 논리와 이론에 기반하여 발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개발된 분류법이 실제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며, 근래에 다시 시작된 이러한 분류법은 과거의 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2 적용사례 분석

2.2.1 사례별 명칭

주제어기반 분류의 전개과정상의 특징은 그 다양한 명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용된 명칭에는 국가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 시기에 걸쳐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을 둔 분류법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Ørvig(1955)는 1942년 미국의 Detroit Public Library에서 시작된 Reader Interest Classification(RIC)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배열만 바꾼다는 점에서 Reader Interest 'Classification' 대신 Reader Interest 'Arran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또한 1950년대에는 Boston Public Library에서 RIC를 변형 적용하여 'Open Shelf Department - Reader Interest Room'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표 2〉 주제어기반 분류를 지칭하는 명칭

시기	분류의 명칭 혹은 사례에 사용된 용어	
1940~1970년대	미국	Reader Interest Classification, Open Shelf Department - Reader Interest Room
	미국	merchandising, marketing, bookstore arrangement
1980~1990년대	영국	reader interest categories(categorization), broad interest group, user orientation
	프랑스	centers of interest
	일본	special interest corners
	독일	immediate concern areas, alternative arrangement
	네덜란드	broad subject arrangement, reader interest categories, topics of current interest
	남아프리카	reader's interest classification
2000년대 이후	미국	Dewey free, Dewey-lite, dropping Dewey, Customers First philosophy, Power Shelving, Barnes & Nobling, Googlization
	캐나다	C3(Customer-Centered Classification)
	호주	decimating dewey

* 출처: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Sapiie(1995)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함

1980년대부터 2000년 전까지의 미국사례에서는 서가 배열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경영 용어를 차용하여 '상품화계획(머천다이징)', '마케팅', '서점식 배열'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같은 시기 유럽국가와 남아프리카, 일본 등지에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관심에 의해 범주화되고 배열된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Sapiie 1995).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근래의 사례에서는 이용자, 고객의 개념을 강조하는 사례가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DDC라는 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보다 부각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도서관의 새로운 분류법의 성격을 서점 및 웹사이트에 빚댄 'Barnes & Nobling', 'Googlization'과 같은 용어도 사용되어, 대형 서점이나 웹사이트에서와 같이 이용자를 고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장서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마케팅 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와 주제어기반 분류는 분류의 우선적인 목적이 이용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범주화가 이루어지며, 일반 어휘 형식의 주제어가 분류기호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관심에 의한 분류'와 '주제어기반 분류'는 동일 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2.2.2 분류의 유형

주제어기반 분류의 사례는 각 사례별로 '분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분류가 실제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라 실제 양상

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본질적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례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대상 시기별로 분류 유형을 구분하여 그 범위와 방법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시기별로 파악된 사례의 수에 차이가 있고 밝혀진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통해 주제어기반 분류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RIC는 원래의 분류 순서에서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정해진 범주로 일시적으로 책을 분리해내어 그룹화시키는 것이므로, 책은 브라우징과 주제별 분류의 두 가지 다른 항목으로 배열되었다(Hyman 1980, 35).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일부 장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4년 후 전체 장서로 확대되었고, 1948~1950년대 말까지 분관 전체로 확대되었다(Baker and Wallace 2002, 287). RIC를 변형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Boston Public Library에서는 성인, 청소년, 아동으로 이용자를 나누어, 개가제 서가 환경에서 독자의 흥미에 따른 항목으로 구분된 장서를 별도로 운용했다(Ørvig 1955). 이용자 관심에 의한 분류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수많은 변형된 방식으로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Hyman 1980, 38),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소수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0~1990년 시기의 사례들은 전체 장서에 대해 이용자 관심에 따른 분류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일부 장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제어기반 분류가 분류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2건에 불과

〈표 3〉 주제어기반 분류의 유형

분류 유형		시기	1940~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대 이후
분석 사례			Detroit Public Library, Boston Public Library의 2개 사례	Queens Borough Public Library(NY) 등 최소 10여개의 사례	Perry Branch, Maricopa County Library District(AZ) 등 15개 사례
적용 범위	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장서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사례는 일부 장서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DDC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장서 전체 혹은 장서 전체에 적용한 곳이 많음. 이 중 성인 논픽션이 주 대상인 경우와 성인용/아동청소년용이 별개인 경우 있음 성인 논픽션에만 적용한 곳도 일부 있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분관에서 시작하여 전체 분관으로 확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혀진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분관에서 실험적 성격으로 도입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체 분관으로 확대하는 경우 많음
분류의 방식	DDC 대체 (듀이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기호와 카드 목록에서 DDC 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어가 분류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소수임 기존의 책에는 두 가지 체제 모두 사용하고, 신규 장서에는 항목명만 붙이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어 주제어 + 저자기호 저자기호 + 주제어 주제어 + 숫자코드 + 저자기호
	DDC 보완 (혼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DDC 번호를 카드 목록에 연필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사례는 두 가지 체제 모두 책등에 부착함 항목명은 책등에 붙이고, DDC 번호는 이표제면에 기록하는 사례와 DDC는 원래의 레이블 위치에 기록하고 항목명은 책등의 윗부분에 부착하는 사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어와 DDC를 결합하여 책등에 표시 주제어는 청구기호에서 나타내고 DDC는 목록에서 보여줌 청구기호는 DDC만으로 구성하고 주제어를 목록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

했고, 이 경우 항목 내 배열은 무작위, 저자명순, 간혹 DDC순으로 이루어졌다.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는 분류번호와 주제어 두 가지를 모두 책등에 부착하였다. 다만, 기존의 책에는 두 가지 체제를 모두 사용하고, 신규 장서에는 항목명만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 두 가지 분류체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항목명은 책등에 붙이고, DDC 번호는 이표제면에 기록하는 사례와, DDC는 원래의 레이블 위치에 기록하고 항목명은 책등의 윗부분에 부착하는 사례가 있었다(Sapie 1995).

2000년대 이후의 주제어기반 분류의 사례들

은 완전히 배제하였느냐 아니면 DDC를 유지한 채 주제어로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듀이 프리와 혼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백지원 2010). DDC를 배제한 듀이 프리 방식의 경우 항목을 나타내는 주제어를 책등에 표시하고 대체로 저자의 성이나 표제 순으로 부가기호를 작성하여 청구기호를 구성한다. 이외는 달리, DDC와 주제어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방식에서는 다양한 유형이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3.1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시대별 유형 비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논의를 가능케 한다.

첫째, 시대별로 듀이프리 유형과 혼합식 유형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기에는 주제가 DDC를 대체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두 가지 체계를 모두 책등에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체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항목명은 책등에 붙이고, DDC 번호는 이표제면에 기록하거나 DDC는 원래의 레이블 위치에 기록하고 항목명은 책등의 윗부분에 부착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어 주제항목명이 DDC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근래의 사례에서는 주제가 DDC를 완전히 대체하는 이른바 듀이 프리 유형의 사례가 먼저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에서 DDC의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혼합식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례의 수로는 혼합식 유형이 많지만 현대로 올수록 DDC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석된 사례는 적용되는 대상 영역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초기에는 RIC 처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으로 이용자 관심에 기반을 둔 분류가 사용되었고, 중기에도 이용자에게 흥미 있을 법한 신간 도서나 특정 주제 분야의 도서를 별도로 배가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분류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장서를 일시적으로 다르게 배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래에 아동 도서나 픽션 등 특정 장서에 각기 다른 색깔 스티커를 붙이는 식의 컬렉션 분류법과 기능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의 사례 대부분은 성인 논픽션을 포함하는 전체 장서의 분류나 배가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의 주제가 기반 분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초기와 중기의 방식은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주제가 분류번호를 대신하거나 보완함으로써 DDC 등 기존 분류체계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기존 서가배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로 전면적으로 등장한 근래의 주제가 기반 분류와는 대상 범위와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분류의 유형상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시기별 정보환경의 맥락에 따라 주제가 기반 분류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IC 방식은 도서관에 따라 DDC 번호를 카드 목록에 연필로 기재하는 경우와 DDC 번호를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있었다(Rutzen 1959). 그런데 1930년대에 RIC에서 카드목록에 분류번호를 남겨둔 것과, 오늘날 목록의 한 요소로 DDC 번호를 남겨둔 것은 주제가 기반 분류의 유형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카드목록의 형태에서 DDC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이지만, 자동화된 목록에서 MARC의 필드로 기재된 DDC 번호는 검색과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같은 유형이라도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제가 기반 분류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 해석해야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장서와 이용자를 각각 상품과 고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비즈니스 개념의 도입에서 더 나아가 분류 자체를 상품화하는 새로운 사례가 발견되었다. 2007년 처음 구상되고 2009년

그 적용이 발표된 캐나다 Markham 도서관의 'C3(Customer-Centered Classification)'에서는 DDC의 장점은 취하되, 복잡한 기호법은 유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관이 개발한 최대 4단계의 숫자로된 분류기호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4〉의 4번 사례 참조). Markham 도서관은 2012년 9월 이러한 분류체계와 표기 방식 등에 관하여 특허를 취득한 상태로, 장서 분류와 함께 이의 활용을 돕는 색션 배너 표지, 책등 표지, 서가 레이블의 방식 등 제반 기능을 일종의 패키지 상품화하여 향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Hosseini-Ara 2012a/2012b). 따라서 향후 분류 영역은 이제까지와 달리 한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분류론적 개념 정립

3.1 주제어기반 분류의 기능

3.1.1 분류유형별 기능

주제어기반 분류의 유형에 따른 지식조직 체계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판단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한 분류유형별 기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탈리아 요리법에 관한 저작인 *Italian Grill*(Mario Batali 2008)을 대상으로 2000년대 이후의 분석 대상 도서관들 중 해당 저작을 소장하고 있고, 온라인 목록을 통해 주제어기반 분류의 결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사례들을 검색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단, 두 건의 사례는 해당 저작 자체는 소장하고 있지 않았으

나, 동일한 주제의 책에 부여된 해당 도서관의 청구기호와 주제항목명 리스트, 해당 자료를 소장한 동일 지역도서관내 다른 분관의 DDC 부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실제와 유사하게 청구기호 및 주제어 부여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포함시킨 경우이다.

DDC의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표 4〉의 사례 중 1번 유형만이 순수한 듀이프리 유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혼합식 유형이다. 혹은, DDC가 청구기호의 수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주제정보로 목록상에서만 기능하는 것을 듀이프리 유형으로 포함시킨다면 1, 2번 유형을 듀이프리, 나머지는 혼합식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청구기호에는 DDC 번호를 사용하고 주제어는 목록의 한 요소로만 나타나는 3번과 같은 유형은 단순히 서지데이터의 요소 중 하나로 주제명표목이 추가된 것 뿐이다. 이 경우 기존의 자원조직 방식을 그대로 두고, 이용자 친화적인 주제명표목을 접근점의 하나로 더 추가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주제어기반 분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개념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검색어의 기능만을 하는 주제어의 유형은 제외함으로써 분류로서 보다 명쾌한 개념화가 가능할 수 있다.

한편, 혼합식 분류 중에서 주제어가 책등의 레이블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장서명이나 서가 위치명으로 목록상에 표현되는 경우, 이러한 주제코드가 1차적인 분류의 역할을 함으로써 DDC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범주화가 이루어져서 분류 방식 자체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표 4〉 Italian Grill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주제어기반 분류의 유형별 기능

번호	유형	청구기호 및 주제어 제시 사례	지식조직체계로서의 기능적 특성
1	주제어	COOKING INTL	분류로서 범주화 및 배가법 결정함
		COOKING INTNTL ITALIAN	
	주제어 + 저자기호	COOKING ITALIAN Batali	
2	'주제어 + 저자기호' 형식의 청구기호와 함께 DDC는 주제어 중 하나로 목록상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번호: COOK INTL BAT •주제: 641 	주제어기반 분류의 결과가 범주화 및 배열을 결정하고, DDC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됨
3	'DDC + 저자기호 + 저작기호' 형식의 청구기호와 함께 MARC 695 필드에 주제어 중 하나로 BISAC 주제명표목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번호: 641.5784 B311i •MARC 필드: 695 † bCKB005000 † aCOOKING / Methods / Barbecue & Grilling. 695 † aCOOKING / Methods / Barbecue & Grilling † bCKB005000 	주제어기반 분류라고 하기 보다는 단순히 통제된 주제명표목이 더 추가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4	'DDC + 저자기호' 혹은 '주제 숫자 코드 + 저자기호' 형식의 청구기호와 함께 주제어로 서가위치 혹은 장서명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기호: 641.5784 BATALI* •서가 위치: Cooking 	주제어가 청구기호 자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부여된 주제항목에 따라 저작이 서가상에 범주화되므로 분류로서의 범주화 및 배가의 기능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기호: 4146 BAT •Collection: Adult - Food & Dr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번호: 641.5784 BAT •장서명: COOK Neighborhood 	
5	주제어 + DDC	FOOD 641.5784	주제어기반 분류의 결과가 범주화를 결정하고, DDC는 해당 범주 아래서 배열을 위한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됨
6	주제어 + DDC + 저자기호	Home 641.5784 BATALI* COOKING AND ENTERTAINING 641.5784 Batali	

* 임의로 작성한 것임

결국, 백지원(2010)에서 DDC와 주제어가 함께 사용되는 유형을 모두 혼합식 분류라고 통칭 하였던 것에 비해,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능적 유형 구분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크게는 주제어 혹은 주제항목 명을 범주화 및 브라우징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류로서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추가 접근점을 제공하는 주제명표목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주제어기반 분류의 기능적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3.1.2 지식조직체계로서의 상대적 기능

주제어기반 분류가 하나의 보편화된 분류로

서 정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문헌분류가 수행해온 주요 기능들을 주제어기반 분류가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헌분류의 주요 기능을 선정하여 도서관과 이용자라는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하고, 특히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주제어기반 분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의 수행 능력을 전통적인 문헌 분류의 수행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관점에서 강화, 유사, 약화 등으로 표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표 5〉 참조).

첫째, 도서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기능 수행력의 비교이다. 주제어기반 분류는 도서관에서 분류의 결과를 주제 범주의 개념으로 업무

〈표 5〉 주제어기반 분류의 기능별 수행력 및 특징

대상	전통적 문헌 분류의 기능	수행력*	주제어기반 분류의 기능상 특징		
도서관	주제별 분포상황 확인	○	새로운 주제별 군집화 결과에 따름		
	자료의 이용 상황 파악	○	새로운 주제별 군집화 결과에 따름		
	서가배열 및 대출	◎	배가시간은 유형 및 장서규모에 좌우되며 대출은 증가됨		
	주제별 서지 작성 및 점검	○	새로운 주제별 군집화 결과에 따름		
	도서관간 상호협력	△	도서관별로 독자적인 분류항목을 설정하여 사용하므로 기본적으로 상호협력 기능의 저하 가능성 있음		
이용자	군집기능	○	분류지가 학문이나 지식 영역이 아닌 이용자의 관심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인접기능	◎	이용자의 관심에 따른 군집화의 결과로 인해 이용자가 느끼는 인접기능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음		
	배가기능	△	듀이 프리	군집화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개별 자료 수준의 주소 기능은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	
		○	혼합식	구체적인 유형별로 다르나 대체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검색기능	특정자료 검색	△	듀이 프리	특정 자료에 대한 검색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혼합식	구체적인 유형별로 다르나 대체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브라우징	◎	친숙하고 직관적인 분류로 브라우징의 기능 강화됨	
		학문영역별, 주제별, 관심 분야별 지식의 체계화 기능	△	학문영역별 지식의 체계화 기능은 약화됨	
		◎	주제별, 관심 분야별 체계화의 기능은 강화됨		

* 주제어기반 분류의 상대적 기능 수행 능력을 나타냄. ◎: 기능 강화, ○: 유사, △: 기능 약화

에 활용하는 면에서는 범주화의 방식이 다를 뿐, 그 기본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대출에 있어서는 주제어기반 분류의 적용에 따른 대출 증가의 효과가 여러 사례에서 보고된 바 있다 (Sapiie 1995; Conarton and Ewing 2010; Oder 2010; Ludwig 2010; Courtright 2010; McGrath 2011). 그러나 주제어기반 분류의 적용이 배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장서의 규모 및 유형에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장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혼합식의 분류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책의 위치를 찾고 배가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된 반면, 장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듀이프리 방식을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배가가

기존의 방식에서 보다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 바 있다(McGrath 2011). 한편, 주제어기반 분류체계가 개별 장서와 도서관에 특화된 성격을 강조하여 구성되는 경우, 도서관간 상호협력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Maltby(1976, 19)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 업무를 위주로 하는 공공도서관 간에 상당한 정도로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 관심의 개념에 기반을 둔 분류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근래 미국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BISAC SH이라는 단일 주제 명표목을 기반으로 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도서관 지역(district) 내에 있는 분관 도서관들이 분

류체계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부문도 그 기능 수행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기능 수행력의 비교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군집기능 자체로는 차이가 없으나 군집기능을 하기 위한 분류지가 학문이나 지식 영역이 아닌 이용자의 관점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인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부수적 효과를 뜻하는 인접기능의 측면에서는 인접자원의 이용자 중심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인접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배가기능과 검색기능에 있어서는 듀이 프리 방식의 경우에는 배가기능과 검색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혼합식 분류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브라우징을 검색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면, 브라우징의 측면에서는 주제어가 기존의 DDC를 보완함으로써 오히려 검색기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asey와 Stephens(2009)는 주제어기반 분류에 대해 검색성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검색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커피 한잔을 마시며 브라우징을 하다가 원하는 책을 발견하는 것을 검색이라고 한다면 결코 검색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식의 체계화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학문, 주제, 관심 중 무엇이냐에 따라 기능이 강화되거나 혹은 반대로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 기능 수행능력의 비교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주제어기반 분류가 어떠한 유형으로 사용되는가 등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있다.

3.2 분류론적 성격 규명

3.2.1 지식조직체계로서의 특성

주제어기반 분류의 주제명은 일반 어휘의 형식으로 나타나므로, 외형적으로만 보면 분류인지 주제어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또한 주제어기반 분류의 결과는 내용적으로 다양한 주제명 중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하나일 수 있으므로 그 기능적 구분도 명쾌하지 않다. 따라서 주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지식조직체계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식조직체계의 유형 중 주제 접근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기능을 해온 분류와 주제명표목을 대상으로 주제어기반 분류와 비교 분석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지식조직체계로서의 주제어기반 분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첫째, 목표와 기능의 측면이다. 분류와 주제명표목, 그리고 주제어기반 분류는 주제 분석의 결과로 자료의 어바웃니스(aboutness)를 추출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의 결과인 분류번호는 유사 저작의 물리적인 집중 기능 및 실물 서가의 배열 기준이 된다. 주제명표목은 분류가 범주화해 놓은 학문 영역을 넘나들면서 주제를 그룹화 하는데 필요한 주제의 여러 측면을 모아주며, 분류체계와 연결되어 논리적이고 주제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Tuttle 2012). 주제어기반 분류에서의 주제어는 분류로서 실물서가의 배열기준이면서 동시에 분류기호에 비해 주제어로서의 접근점의 기능이 강조된다. 즉, 주제어기반 분류는 기능적으로 배가를 위한 분류의 역할, 서가 브라우징에서는 검색 접근점의 역할, 목록상에서

는 주제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주제어기반 분류가 지식조직체계로서 기존의 문헌 분류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대표성의 측면이다. 분류로서의 주제 분석의 결과는 대개 단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주제명표목은 저작에 대한 접근점으로 기능하며 형식, 주제, 시대, 장소 등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므로 이론상 그 개수에 제한이 없으며 대체로 복수개의 주제명이 선택된다. 주제어기반 분류는 1차적으로 분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일의 주제 분석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혼합식 분류 유형에서 주제어의 일중으로 사용될 때는 복수개가 선정될 수 있다.

셋째, 체계의 근거의 측면이다. 대다수의 분류 이론에서 문헌분류는 지식분류에 준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 조건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DDC의 비교우위 특징 중 하나도 학문분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윤희운 2011, 107). 주제명표목은 대체로 통제된 어휘로 구성된 주제명표목표에서 선택되며, 각종 표준과 지침을 통해 여러 어휘 중 포함시킬 어휘와 채택표목의 선정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어기반 분류는 이용자 의견 조사, 사서의 서비스 경험에 의한 판단 등을 기초로 하고, 현실적으로는 BISAC SH 등과 같은 상업적 영역의 주제명표목표 양식의 분류체계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표기 방식의 측면이다. 분류는 고유의 기호법을 이용하여 대체로 책등의 일정한 위치에 분류결과를 표시하게 된다. 주제명표목은 목록상에 하나의 정보 요소로 제시된다. 주제어기반 분류에서는 분류로서 책등에 표시되는

경우 대체로 어휘 형식을 사용하며, 책등의 레이아웃이라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제어가 축약되거나 코드화되는 경우가 있다. 서가명이나 장서명으로 제시되는 경우, 범주화의 1차적인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책에 직접 표시되는 않고 목록상에서 책의 소재위치를 지시하기 위한 명칭으로 제시된다.

3.2.2 분류론적 개념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주제어기반 분류의 개념을 분류론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주제어기반 분류는 분류와 주제명표목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되, 유형과 적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기반 분류는 분류와 주제명표목과 일정 부분 공통점도 갖지만 각기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기반 분류는 브라우징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목록 검색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가 대면하는 첫 번째 검색어일 수 있으며, 이때 자료에 부여된 기존의 주제명표목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국 브라우징시 주제 가이드 역할을 분류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주제 분류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보 검색의 첫 번째 매칭 포인트의 역할도 해내야 하므로 범주화의 기준과 어휘 선택의 중요성이 크다. 분류 항목명이라는 특성상, 실제 검색어만큼 상세할 수는 없지만, 요구되는 속성에는 검색어의 요건이 있으므로 주제어기반 분류의 결과는 주제명으로서 다양한 주제명 중 가장 대표되는 주제여야 하고, 어휘로서도 검색어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관련 주제어 중 가장 문헌에 적합한 첫 번째 주제

어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명명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레벨로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주제어기반 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들 중, 주제어를 MARC의 필드로 삽입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주제어가 검색의 요소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즉, 현재와 같이 물리적으로 레이블 위에 부착되고 목록 결과 디스플레이에서 청구기호의 일부로만 제시되는 방식에서는, 목록 검색을 하더라도 주제어기반 분류가 직접적인 접근점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주제어기반 분류는 검색어로서의 기능 보다는 브라우징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서가값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여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제어기반 분류는 OPAC 2.0의 개념을 분류론적으로 구현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OPAC 2.0은 기존의 서지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인터페이스이자 도구이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색인의 조합으로서(심경 2008), OPAC 2.0의 개념에 있어서 목록은 각종 서지사항, 패킷, 주제어 등 다양한 색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분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용자도 태그, 서평, 평가 등의 작성을 통해 목록 정보의 다양화에 기여할 뿐 분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용자 태그가 클라우드를 이루면서 폭소노미 형태로 검색 접근점 측면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태그는 저조한 이용자 참여로 인해 의미 있는 규모에 이르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에 태그 클라우드를 통한 이용자 측면의 분류 강화는 아직까지 요원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는 목록을 통한 검색시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제어기반 분류의 적용은 이용자의 시각을 강조한, 폭소노미와 같은 기능을 도서관 차원에서 공식화,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OPAC 2.0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향후 발전방안

주제어기반 분류의 개념 정립과 함께, 향후 분류체계로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류로서의 보다 정밀한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요건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분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느 분류든 유사하겠으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분류체계 작성이나 선정의 근거와 절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분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류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분류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되면 분류에 기대하는 기능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보 환경에 맞는 분류의 기능 정의 및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 Hyman(1980, 50-52)은 당시 자동화된 목록과 불(Boolean) 검색 기법을 통한 다양한 자료 검색이 가능해지는 상황에

서 서기분류의 기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자동화목록이 발전하고 그 어떤 훌륭한 서지 도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언제나 서가에 직접 접근하여 브라우징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서기분류는 최소한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라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과 수준의 정보접근이 가능한 현대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분류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의하고, 여러 유형의 지식조직 체계간의 기능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자관의 이용자와 목표에 최적화된 방식의 분류로 주제어기반 분류를 선정한다면, 주제어기반 분류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와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제어기반 분류가 미처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은 다른 도구나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분류에 있어 이용자 연구 및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다른 영역에 비해 분류의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다양한 도서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보이는 브라우징의 습성은 어떠한가 등 이용과 요구에 적합한 분류체계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근본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Langridge(1992, 61)는 분류체계는 적절하지 않더라도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용자들은 다른 분류체계로 인해 얼마나 더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고, 이에 따라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주제어기반 분류는 이용자의 요구와 관심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분류체계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적용 및 효율성 평가

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연구가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분류의 영역에 적합한 평가 기법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분류에 있어서 조직 타당성(organization warrant) 및 이용자 타당성(user warran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NISO(2005, 16)에서는 분류를 비롯한 통제어휘도구에 포함시킬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헌적 타당성, 조직 타당성, 이용자 타당성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 정보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문헌적 타당성을 고려해왔다면, 이용자 중심적인 정보조직에 있어서는 조직 타당성 및 이용자 타당성 역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타당성은 어떠한 개념에 대한 가장 빈번한 정보 요청에 근거하여 채택 표목을 선정하거나 개념의 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어휘 형태의 주제어를 분류로 사용하는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는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보다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고려와 적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주제어기반 분류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분류와 지식조직체계의 한 유형으로서 주제어기반 분류의 기능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류 체계로서의 정착 가능성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제어기반 분류의 시작과 그 전개과정을 필요성에 대한 논의, 명칭의 변화, 구체적인 유형 및 기능 구분 등의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제어기반 분류는 단순히 분류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식조직 체계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다른 서지제어 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 특징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분류와 주제명표목이라는 두 가지 지식조직체계의 관점에서 주제어 기반의 분류를 분석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주제어기반 분류가 갖는 분류체계로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한 바와 같이 주제어기반 분류는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논의가 마련되어 있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당위성과 지속적인 시도에 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시 한 번 시작된 주제어기반 분류의 시도가 또 다시 한 때의 실험으로 기록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주된 문헌분류법으로 정착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의 시도와 함께 주제어기반 분류의 본질을 탐구하고 앞으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인 연구가 함께 수행될 때, 주제어기반 분류는 그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도서관계도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정보조직도구에 대해 고민하고, 지식조직 체계간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가능케 하는 시도로서 주제어기반 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명옥. 1986.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노지현. 2010.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51-169.
 백지원. 2010.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179-201.
 _____. 2011.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에 관한 연구: 지식조직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8(1): 171-193.
 심 경. 2008. 차세대 도서관 목록. 『도서관문화』, 49(9): 22-28.
 오경은, 김기영. 2008.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4): 25-42.
 윤희운. 2011. 『정보자료분류론』. 대구: 태일사.
 Baker, Sharon L. and Karen L. Wallace. 2002. *The responsive public library how to develop and market a winning collec-*

- tion, 2nd ed.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BISG. 2010. BISG Subject Headings List. Major Subjects - 2010 Editions. [online]. [cited 2011.4.20]. <<http://www.bisg.org/what-we-do-0-136-bisac-subject-headings-list-major-subjects.php>>.
- Casey, Michael and Michael Stephens. 2009. "It's fine to drop Dewey." *Library Journal*, 134(12): 19.
- Conarton, Stephanie and Patricia Ewing. 2010. "Dewey or don't we: making library collections more accessible." 3~5, March. COSUGI 2010 Annual Conference.
- Courtright, H. R. 2010. "The national impact of the Dewey-less library." *Public Libraries*, July/August 2010: 15-17.
- Dunkin, Paul Shaner. 1942. Classification and the scholar.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3): 333-341. [online]. [cited 2012.3.5]. <<https://www.ideals.illinois.edu/handle/2142/31836>>.
- Fialkoff, F. 2009. It's not about Dewey. *Library Journal*, 134(18): 8.
- Hosseini-Ara, Moe. 2012a. CIL2012 Day 2 Session 1: "C3: Customer-Centered Classification." [online]. [cited 2012.9.20]. <<http://informationartisan.wordpress.com/2012/03/22/cil2012-day-2-session-1-c3-customer-centered-classification/>>.
- _____. 2012b. "Re: about C3 classification scheme." 전자우편. 2012.10.17.
- Hulme, E. Wundham. 1911.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s. 12-14. Phillips, W. Howard. 1961.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에서 재인용.
- Hyman, Richard J. 1980. *Shelf classification research: past, present, future?* Occasional paper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 no.146. [online]. [cited 2011.5.22]. <<http://hdl.handle.net/2142/3952>>.
- Kelley, Grace O. 1937. *The classification of books: an inquiry into its usefulness to the reader*. New York: Wilson.
- Langridge, Derek Wilton. 1992. *Classification: its kinds, elements, system and applications*. London: Bowker-Saur.
- Losee, Robert M. 1995. "How to study classification systems and their appropriateness for individual institution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3/4): 45-58.
- Ludwig, Sarah. 2010. "Dewey-lite." *Public Libraries*, July/August: 17-20.
- Maltby, Arthur. 1978.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London: The Trinity Press.
- NISO. 2005. *ANSI/NISO Z39.19 -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Format, and Management of Monolingual Controlled*

- Vocabularies*. (R2010).
- Oder, Norman. 2010. *PLA 2010 Conference: Cracking the Code: Beyond Dewey*. [online]. [cited 2011.11.20].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724514.html>>.
- Ørvig, Mary. 1955. "The reader interest arrangement, an American shelving system with a future." *Libri*, 5(3): 223-232.
- Phillips, W. Howard. 1961.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 Richardson, Ernest Cushing. 1930.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3rd ed. New York: H.W. Wilson, Phillips, W. Howard. 1961.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에서 재인용.
- Rutzen, Ruth. 1959. *A classification for the reader*. In F. T. Eaton and D. E. Strout (eds). 1959. *The role of classification in the modern American library: papers presented at an institute conducted by the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November 1-4, 1959. Urbana, Il: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53-61.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online]. [cited 2012.1.24]. <<http://www.ideals.illinois.edu/handle/2142/1477>>.
- Sapiie, Jacquelyn. 1995.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3): 143-155.
- Savage, Ernest A. 1949. *Manual of book classification and display for public libraries*. London: G. Allen & Unwin.
- Schneider, Karen G. 2007. "Raising Arizona." [online]. [cited 2012.8.20]. <<http://www.alatechsource.org/blog/2007/07/raising-arizona.html>>.
- Siess, Judith A. 2003. *The visible librarian: asserting your value with marketing and advocac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Tuttle, Jonathan. 2012. "The aphasia of modern subject acces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0(4): 263-275.
- Webb, T. D. 1985. "Phoenix public library: reorganization based on a hierarchy of user types." In *Reorganization in the public library*. 52-66. Phoenix: ORYX Press.
- Woodward, Jeannette. 2005. *Creating the customer-driven library: building on the bookstore mode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